

“건축은 우리네 삶을 설계하는 것”

■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초빙 건축가 최 문 규

세계일보 2006년 9월 15일 33면

“건축은 한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건설의 얼굴에 가려 문화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주제관 조빙작가로 참여하는 건축가 최문규(43)씨는 미술이나 영화의 경우 국제비엔날레나 국제영화제 초청 사실이 뉴스가 되지만, 건축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못내 아쉽다는 표정이다.

“예전엔 외향으로 보여지는 건물 양식이 건축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삶을 조직하는 것이 건축이지요.” 건축가는 결국 우리네 삶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삶의 새로운 방식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터넷 발달로 구분의 의미 사라져 경계 넓어져 사고의 영역도 확장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문화 이동이 쉬워지면서 개인·집단·지역·용도 구분의 경계가 붕괴되었습니다. 혼성이 이 시대 문화 키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계가 넓어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고의 영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이미지에 질문을 던지고, 건축이 보기 좋은 건물에서 탈피해 사고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인공의 혼성도 마찬가지다.

주제관 출품작은 칼럼바이대 건축과 대학원 동문인 조민석씨, 제임스 슬레이드(미국인)와의 합작품인 ‘딸기 테마파크’(딸기가 좋아).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에 위치한 ‘딸기 테마파크’는 지난해 공사가 시작돼 지난 12월 개장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600여평으로 전시, 판매, 식당, 휴식공간이 한데 어울린 혼성 공간이다. 딸기는 10대를 위한 의류와 팬시 상품에 등장하는 만화 캐릭터로 이 작품은 상상과 실제, 쇼핑과 놀이, 자연과 인공, 문화와 상업의 이분법을 허물고 딸기 이야기 속으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한다. 한국 건축에서 ‘삶의 질’ 부분이 좀더 고려될 필

요가 있다는 최씨는 현재 가야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일하고 있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엔 사상 처음으로 주제관, 국제관, 특별전 3개 부문 전체에 한국 작가들이 참여한다.

한국관에는 키미셔너 정기용씨의 주도로 김광수, 송재호, 유석연씨가 ‘방의 도시(City of bang)’라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한다.



○세계 건축계의 최두는 ‘혼성’이라고 말하는 최문규씨.

‘방(bang)’은 영어의 방(room)이 한정되지 않고 한국적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김광수는 현대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도시의 다른 공간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도시라는 집’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송재호는 정보 네트워크 도시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도시적 시스템이 새로운 도시들의 상황에 유리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를 질문한다. 유석연은 ‘스쿨 파크’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비엔날레는 오는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린다. 한국관은 9월 10일 오후 3시(현지시간) 개막된다. 편완식기자